

광주본부세관, 적극행정 실천다짐 결의대회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성태근)은 21일 '적극행정 실천 다짐결의식 및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전 직원들은 광주본부세관 적극행정 표어 공모전 수상작인 '소극행정 거리두기 적극행정 결의' 입간판에 각자의 서명을 하는 등 실천의지를 다졌다. 또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밖에 인사혁신처 지정 적극행정 전문강사

전남대, 서울·경북대와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 설립 협약



전남대(총장 정성택)는 21일 서울대·경북대와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데이터사이언스 발전을 위한 협약'에 맺었다. 이날 협약에 따라 3개 대학은 ▲대학원 설립과 교육과정 수립, 교육연구 환경 구축 등에 필요한 노하우 공유 ▲데이터 사이언스의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및 교류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안전보건공단 전남본부, 산재예방 유공자 표창



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정정환)가 최근 2021년 산업안전보건 강조조건을 맞아 지역 산재예방 유공자 4명에게 표창을 전수했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감사패는 ㈜마린텍 김용환 대표이사과 한국건설㈜ 윤재신 이사에게 주어졌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표창장은 현대힘스㈜ 대

최정학 가나다 대표, 법무보호대상자에 닭고기 지원



최정학 (주)가나다 대표(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협의회장)가 최근 중책을 맡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정봉영)에 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물품(닭고기 500kg·25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K리거 설현진·김명순 모교 광주대에 발전기금 쾌척



프로축구 K리그에 진출한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 축구부 설현진(경남 FC·사진 왼쪽)과 김명순(제주유나이티드)이 모교에 발전기금을 쾌척했다. 21일 광주대에 따르면 두 선수는 최근 모교 발전과 후배 양성에 사용해 달라며 학교에 각각 500만원의 발전기금 약정서를 전달했다. '제57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한산대접기 결승전에서 두 골을 넣으며 우승에 걸린자 구실을 한 설현진은 지난 5일 경남 FC에서 입단과 동시에 데뷔전까지 치르며 무서운 신인에 주목 받고 있다.

광주테크노파크, 공공배달앱 활성화 '언능 시켜부러' 주문챗봇지 동참



광주테크노파크(원장 김선민·사진)는 지난 1일 광주시 공공배달앱 '위대프오' 활성화를 위한 주문챗봇지 '언능 시켜부러' 8번째 주자로 동참했다. 또 광주테크노파크는 이날 공공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뒤 입주시·기관을 위해 고생하는 미화, 경비, 시설 분야 등 용역근로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했다. 지난 1일 정식 출시된 광주시 공공배달앱은 중개수수료가 2%로 민간 배달앱의 6.8~12.5% 보다 저렴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소비자는 최대 10%가 할인되는 광주상생카드도 결제가 가능하고, 각종 할인쿠폰도 제공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TV프로그램 2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Program Name, Time, and Description.

EBS1

Table with 3 columns: Time, Program Name, and Description for EBS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2일 (음 6월 13일 辛未)
36년생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을 알자. 48년생 뜻밖의 것이 나타나지만 대응할 수는 있다. 60년생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2년생 현상으로는 미진한 바가 허다하니 다른 방법을 택함이 현명하다. 84년생 형식과 내용을 두루 살펴야 하느니라. 96년생 근본을 살펴보면 같이 정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6, 89
37년생 인과응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당황하지 않으리라. 49년생 완전히 떨쳐버리지 않는다면 끝까지 거리를 남는다. 61년생 속고의 시간이 길수록 실속이 있다는 것을 알라. 73년생 한결같은 마음으로 임하자. 85년생 좋은 기회가 다가오고 있느니라. 97년생 바라는 일이 이루어져서 몹시 기뻐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0, 92
38년생 주어진 여건에 불만을 갖지 말고, 이리저리 궁리해 보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50년생 어림잡아서 판단할 일이 아니라 정확해야 한다. 62년생 경쟁력을 강화시켜야만 밀려나지 않을 것이다. 74년생 본계도와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느니라. 86년생 적용을 달릴 필요가 있다. 98년생 효과가 커진다. 행운의 숫자 : 13, 72
39년생 별 문제가 아닌 소란할 것이니 편안한 마음으로 임해도 된다. 51년생 의심스럽다면 차치하는 편이 나은 것이다. 63년생 상대의 의사를 수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75년생 다시 한 번 고려한 후에 행하는 것이 옳다. 87년생 물처럼 스며들어서 자연스럽게 함께 하자. 99년생 실효성의 관점에서 판단할 일이다. 행운의 숫자 : 08, 88
40년생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52년생 만망하여 왔던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64년생 생방법에 따라서 의미의 차이가 크다. 76년생 이리저리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판세라서 애매하리라. 88년생 바른생각은 복주머니를 만드는 셈이다. 00년생 내면의 실정에 충실함이 합당하다. 행운의 숫자 : 39, 56
41년생 상대를 위한 자세는 궁극적으로 자신을 위한 길임을 깨닫게 되리라. 53년생 삼사일인 한다면 면역할 수 있는 것이다. 65년생 끝나는 마당에 작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77년생 새로운 관계로 재정립 될 가능성이 높다. 89년생 집중한다면 소기의 성과가 있으리라. 01년생 치밀하게 원인을 분석하자. 행운의 숫자 : 47, 85
42년생 하나하나 빠짐없이 잘 살펴보고 없다면 절대로 못 찾을 것이다. 54년생 심도 있게 논의한 다음에 결정하자. 66년생 천재일우의 귀중한 협력자를 만나게 되리라. 78년생 협조를 가정해서 자신의 실속을 채우려는 이가 보인다. 90년생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2년생 액뎌하는 셈 치면 속 편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5, 62
43년생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치열한 노력이 수반 되어야 한다. 55년생 불만족스럽다면 원인 요소부터 면밀히 살펴야겠다. 67년생 다양하게 세분화 되면서 체계가 서리다. 79년생 치밀하게 구성 되어야만 한다. 91년생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아야겠다. 03년생 넘어가려하지 말고 밝혀야만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16, 96
32년생 삼중고에 시달릴 수도 있는 약재가 보이니 마음을 다잡아야 할 것이다. 44년생 기준과 원칙을 준수한다면 위기를 모면하리라. 56년생 뜻밖의 것이 발생할 수 있으니 두루 살펴보자. 68년생 고통은 따르지만 득이 되는 일이나. 80년생 목전에서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도 있다. 92년생 직접 체험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21, 77
33년생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있다면 어떠한 판국에서나 헤쳐 나갈 수 있다. 45년생 결과보다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57년생 이면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감각이 필요하다. 69년생 생활에 많은 보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81년생 열려할 정도는 아니다. 93년생 결과 보다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값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5, 54
34년생 여기서 틀어지면 막판에 이를 수도 있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임하라. 46년생 비밀은 끝까지 유지하여야만 후유증이 없다. 58년생 수고로운 일이긴 하지만 보람은 있을 것이다. 70년생 초기에 핵심 가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82년생 말 못할 갈등에 사로잡힐 수이다. 94년생 대폭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행운의 숫자 : 07, 66
35년생 일단 예봉을 피한 다음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47년생 뒷감당할 일까지 염두에 두고 행하라. 59년생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요구 된다. 71년생 본분을 제대로 파악해야 자질을 빛지 않는다. 83년생 고만하지 말고 상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95년생 노력하면 된다. 행운의 숫자 : 25, 61